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허쉬의 사회통제이론의 확장

— 주요 통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의 도입을 중심으로 —

이 동 원*

지금까지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은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매우 유용한 이론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통제이론은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다는 비판을 지속적으로 받아왔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기존의 경험적 검증결과들이 사회통제의 요소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무시하여 왔다는 점에 주목하고, 따라서 사회통제 요소의 직접적인 효과 뿐만 아니라 그들 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포괄하는 것이 사회통제이론의 본래 의미에 부합될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하여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설명력—특히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덧붙여서 각각의 통제요소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통제요인의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에 대한 분석은 통제의 요소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 줄 것으로 기대하고 경험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경험적 조사 및 분석에 있어서는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서 말하는 네가지 사회유대의 요소 모두를 포함하지 않고 애착 *attachment*과 관여 *commitment*를 중심으로 접근하였는데, 나머지 유대요소는 기존의 경험적 연구결과 부차적이며 상대적으로 중요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애착은 경험적 이론적 성격에 비추어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의 감독’으로 분리하여 측정하였으며, 관여는 ‘학업성적’을 통하여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세가지 변인들 간의 상호작용항을 변인으로 도입함으로써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되었으며 특히 경비행에서는 설명력의 증가가 일어나지 않고 중비행의 정도나 비행심각도의 정도에 대한 설명력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기존의 연구결과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비행과 매우 강한 관계가 있다고 하였으나 그러한 주장은 본 연구결과에 따르면 학업성적이 불량한 소년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이고 학업성적이 우수한 소년들에게는 적용될 수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또한 부모의 감독도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소년들에게만 비행을 통제하는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은 부모의 애착수준에 상관없이 비행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 · 사회학

났지만 애착의 정도가 약할수록 비행과의 관계는 더욱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상호작용 효과의 도입을 통하여 사회통제이론이 가지는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켰고 각각의 통제요인들이 비행을 통제하는 데 영향력을 강하게 미칠 수 있는 국면과 영향력을 약하게 미치거나 미칠 수 없는 국면을 찾아 냈다는 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I. 문제제기

Gibbons[1979 : 121]은 사회통제의 관점에서 청소년 비행을 설명하려는 여러 시도[Nye, 1958; Reckless, 1961; Reiss, 1951]가 있었지만 Hirschi[1969]의 사회통제이론이야말로 이전의 통제의 관점을 능가할 정도로 상세하고 형식을 갖추어 사회유대의 요소를 조직화한 이론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이라도 하듯이 경험적 연구결과에 따르면 사회통제이론의 청소년 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다른 비행이론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강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Gardner and Shoemaker, 1989; Hirschi, 1969; Hindelang, 1973; Krohn and Massey, 1980; Liska and Reed, 1985; Rosenbaum, 1987; Wiatrowski et al., 1981].

사회통제이론이 많은 기존의 비행이론과 달리 많은 관심을 끌게 되면서 그에 대한 찬사뿐만 아니라 많은 비판도 뒤따랐다. 그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판은 사회통제이론은 경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강하지만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은 약하다는 비판[Agnew, 1993; Aultman, 1979; Burkett & White, 1974; Canter, 1982; Gardner & Shoemaker, 1989; Johnson, 1984; Kelly & Pink, 1973; Krohn & Massey, 1980; Krohn et al., 1983; Matsueda, 1989; Minor, 1977; Rankin, 1977, 1980; Rosenbaum, 1987; 이성식, 1995]이다. 이러한 사회통제이론의 약점에 대하여 Krohn과 Massey[1980]는 사회통제이론에 있어서 일탈은 유대의 약화로 인하여 일어나는 자연스러운 결과 *natural result*라는 점을 지적하고, 사회통제이론은 본질적으로 자연스런 일탈 *natural deviance*을 설명하는 데 기여할 뿐이고 보다 심각한 비행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다른 요인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Matsueda[1989]도 사회통제이론의 검증에 있어서는 비교적 심각하지 않는 형태의 일탈행위 즉 지위비행과 같은 것을 종속변수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에 대하여 Hirschi[1986 : 115]는 자신의 사회통제이론이 대인범죄와 같은 중비행보다는 사소한 충동적 일탈행위 즉 지위비행과 같은

일련의 행위에 대해서 검증이 잘 되며 그 이유는 그러한 비행은 범죄성향을 보여주는 매우 적절한 지표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사실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은 “왜 특정소년은 비행을 저지르는가?”라는 질문에 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반대로 “왜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가?”라는 의문에서 출발하고 있고, 비행의 동기는 사실상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고 비행을 저지르지 못하고도록 하는 사회적 유대가 약화되면 자연스럽게 일탈 행위를 하게 된다는 입장이다. 결국 유대약화의 결과는 청소년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일차적으로 보다 쉽게 저지를 수 있는 경비행으로 나타나기 쉽고 중비행의 경우는 여러 다른 상황과 결부되어 발생된다고 보고 있다(Hirschi & Gottfredson, 1986). 바로 그러한 점 때문에 Hirschi(1986)는 자신의 사회통제이론은 경비행을 설명하는 데 적절한 개인의 범죄성향이나 일탈성향에 관한 이론이므로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합리적 선택 *rational choice* 이론과의 통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최초 사회통제이론에서 범죄성향의 선천성을 통하여 모든 비행을 설명하려는 기존의 입장에서 후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

이와같은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경험적 검증결과에 대하여 Caulfield(1988)는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Hirschi 자신의 경험적 검증방식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대부분의 학자들의 경험적 검증방식이 사회통제이론의 본질에 비추어 불충분하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같은 맥락에서 Rankin과 Well(1990) 그리고 Wiatrowski와 그의 동료들(1981)도 기존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검증은 네가지 사회적 유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초점을 맞춘 나머지 그들간의 결합에 의한 상호작용효과를 배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그러한 상호작용 효과를 도입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회통제이론에 있어서 통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의 도입에 대한 이들의 주장은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상호작용효과를 도입함으로써 사회통제이론의 가장 큰 약점으로 꼽히는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을지도 모른다. 바로 그러한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주요 통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효과의 도입이 과연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아울러 상호작용 효과의 고찰을 통하여 특정 통제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통제요인과의 관계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II. 통제요인의 상호작용 및 통제요인의 재구성

Caulfield(1988)는 Hirschi(1969)가 자신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검증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네가지 유대요소를 각각 분리된 것으로 취급하였다고 문제를 제기하였다. 즉 허쉬는 비행에 대한 각각의 유대요소들이 가지는 개별적인 효과를 분석하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Hirschi(1969 : 27-31)도 그러한 유대요소들의 결합효과가 이론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고 유대요소들이 동시에 결합하여 비행에 작용하는 것으로 개념화하였지만 실제 그것을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방식은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며, 방법론적으로 유대요소들이 비행에 미치는 다변인 분석을 통해서도 개별 유대요소의 고유의 영향을 밝힐 뿐 유대요소들간의 결합의 효과를 밝혀내지 못한다. 이는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의 개념화와 경험적 검증간의 차이를 지적하는 것이다.

Hirschi의 경험적 검증은 유대요소 각각과 비행간의 관계에 대한 분석이라는 네개의 구별되는 부가적 모델 *additive model*로 이루어졌으며 그것은 각각의 개별적인 유대 요소들이 비행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는 모델이다. 물론 개별적인 요소들이 비행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살피는 것이 사회통제이론의 검증에서 필수적이지만 원래의 이론적 개념화에 대한 분석의 일부분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Caulfield, 1988]. 따라서 유대가 비행의 통제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전체로서의 유대의 효과를 말하는 것이고 개별적인 유대요소가 비행을 설명하는 부분과 유대요소들간의 상호작용 효과가 설명하는 부분을 포괄했을 때 비로소 유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총괄적으로 보여 줄 수 있을 것이다.

사실 사회적 유대라는 것은 단계적으로 습득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한 개인에게 있어서 특정 유대요소의 정도가 필연적으로 다른 요소의 정도와 비슷한 정도로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다. 서로서로 그 정도는 다를 수 있고 그것은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일부 유대요소가 강하고 일부 유대요소가 약할 경우에는 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피는 것은 유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심도있게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이와같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검증이 중요한 것은 비행행위를 통제하는 유대요소들의 중요성에 대한 통찰력을 배가시킬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 예컨대 두가지 유대요소가 모두 낮았을 경우에 비행에 대한 참여를 증가시킨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둘다 동시에 낮았을 경우에 단지 부가적인 모델에 의해서 기대되는 것 보다 비행이 더 많이 증가할 수 있고, 또한 비행의 심각성에 있어서도 달라질 수 있다.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으며 또 그 반대의 경우도 상정할 수 있다. 관여가 낮을 경우에 애착과 비행의 관계의 강도와 관여가 높을 경우의 애착과 비행의 관계 강도는 달라질 수 있다. 그러므로 유대의 각 요소들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를 다른 요소의 수준에 상관없이 또는 다른 요소의 모든 수준에서 어떤 효과를 가진다고 결론짓는 것은 상당히 근시안적인 접근이다. 결국 유대의 한 요소가 가지는 영향은 다른 요소의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고 볼 수 있다. 이는 유대의 요소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가적 모델과 아울러 유대요소들의 상호작용항을 모두 포괄해야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유대가 비행에 대해서 가지는 설명력을 보다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결국 사회통제이론에서는 “왜 사람들이 비행에 참여하지 않는가”라는 문제에 관심이 있는데, 상호작용 효과를 도입함으로써 “왜 어떤 소년들은 비행에 예외적으로 많이 참여하는가”에 대한 설명을 제공할 수 있으며, 또한 더 나아가서 질적으로 심각한 비행을 저지르는 소년에 대한 설명도 가능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유대요소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검증하려고 시도한 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하며 상호작용 효과 분석의 필요성을 제기한 연구자¹⁾조차도 그것을 경험적으로 밝히려고 시도하지 않았다.

한편 Rankin과 Wells(1990)는 사회통제이론에서 가장 중요한 유대요소인 애착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유대요소와 얽혀 있어 그것을 정확히 밝혀내기 어려우며, 더 나아가 부모의 애착의 경우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부모의 간접통제(애착)와 직접통제(감독)로 나누어야 하고 또한 두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까지 살펴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이는 두가지 조건이 결합되었을 경우에 비행에 미치는 효과는 단순히 둘을 합한 것 보다 큰 곱한 것보다도 같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험적으로 입증하는 데는 실패하였다. 반면에 Caulfield(1988)는 유대요소들간의 상호작용항을 변인으로 추가하면서 대부분의 유형의 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증가했으며, 아울러 비행친구와 유대요소

1) Wiatrowski 등(1981)도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유대요소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적용하지 않았다.

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도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Hirschi(1969)에 따르면 청소년의 비행을 통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네가지 유대요소는 애착 *attachment*, 관여 *commitment*, 참여 *involvement*, 신념 *belief* 등 네가지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이들 네가지 유대요소들간의 모든 상호작용 효과를 살피는 것이 아니고, 지금까지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논의를 토대로 주요한 몇가지 유대에 관련된 변인을 중심으로 상호작용효과를 살피고자 한다. 이는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검증과정에 있어서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약하다는 비판 못지않게 이들 유대요소들의 비행과의 관련여부나 유대요소 구분의 적절성 등에 관한 타당한 비판은 수용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애착은 인습적인 타자에 대한 애정적인 유대관계를 말하는 것으로, 구체적으로는 부모에 대한 애착, 학교에 대한 애착, 친구에 대한 애착 등으로 세분된다. 그런데 친구에 대한 애착과 학교에 대한 애착은 본 연구에서 제외하고자 한다. 이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사회유대 요소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더욱 중요하다는 경험적 연구결과(Aultman, 1979; Cernkovich & Giordano, 1987; Conger, 1976; Elliott et al., 1985a; Hepburn, 1976; Hindelang, 1973; Hirschi, 1969; Jensen & Eve, 1976; Krohn & Massey, 1980; Linden & Hackler, 1973; Liska & Reed, 1985; Poole & Regoli, 1979; Wiatrowski et al., 1981)때문이기도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친구에 대한 애착과 비행과의 관계에 대한 경험적 검증결과²⁾와 학교에 대한 애착의 개념적 혼란 및 관여와의 사실상의 중복³⁾ 때문이다.

2) 친구에 대한 애착은 허쉬의 기대와는 달리 비행을 감소시키기 보다는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경험적인 연구결과(Agnew, 1985; Hindelang, 1973; Jensen, 1972; Krohn & Massey, 1980; Massey & Krohn, 1986; Wiatrowski et al., 1981)와 비행친구에 대한 애착이 비행을 증가시킨다는 경험적 연구결과(Agnew, 1991a; Hansell & Wiatrowski, 1981; Giordano et al., 1986; Hindelang, 1973; Johnson, 1979)로 인하여 많은 비판을 받게 되면서 친구에 대한 애착은 비행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이지 못하는 것으로 일반화되어 사회유대의 한 요소로서의 의미를 사실상 상실하게 되었다.

3) 학교에 대한 애착에 있어서 Hirschi(1969 : 110-134)는 약간의 개념적 혼란을 보여주고 있는데, 한편으로는 학교에 관련된 사람 즉 인습적인 타자에 대한 애착에 관하여 논의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학교라는 사회적 기관 *social institution*에 관한 애착을 논하고 있다. 그리고 학교에 대한 애착의 지표로서 학업성적과 학업능력과 같은 변인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관여 *commitment*의 지표로 가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사에 대한 애착'은 허쉬 이후의 각종 비행연구에서 별로 다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이는 성적과 같은 변인을 관여를 측정하는 항목으로 도입한다면 교사에 대한 애착을 별도로 측정할 필요가 없다는 주장(Krohn & Massey, 1980 : 531) 때문이기도 하지만, 더욱이 애정적 관계라

부모에 대한 애착은 Hirschi[1969]에 따르면 부모와의 동일시, 부모와의 의사소통, 부모의 직접적인 감독 등 세가지 하위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부모의 감독은 다른 두가지 하위차원과는 개념적으로나 경험적으로 구별되어야 한다는 주장[Cernkovich & Giordano, 1987; Patterson, 1980, 1982; Patterson & Dishion, 1985; Rankin & Wells, 1990; Smith & Paternoster, 1987; Van Voorhis et al., 1988; Wells & Rankin, 1988; Wiatrowski et al., 1981]에 비추어 보거나, ‘부모와의 동일시’나 ‘부모와의 의사소통’은 부모와 자녀간의 정서적 친밀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자녀에 대한 간접적 통제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볼 수 있으며, 반면에 ‘부모의 감독’은 직접적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부모의 애착이란 개념으로 포괄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따른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은 ‘부모와의 동일시’와 ‘부모와의 의사소통’을 포괄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이라는 한 차원으로 구분하고 나머지 ‘부모의 감독’은 다른 한 차원으로 구분하는 것이 타당하다. 부모에 대한 애착은 소년과 부모간의 상호적인 유대라면, 감독은 다분히 부모가 소년에 대한 일방적인 유대라는 측면이 강하고 또한 애착이라는 유대요소가 정서적 통제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모의 감독’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는 별개의 것으로 볼 필요가 있다. 현실적으로 볼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은 그 정도가 높을수록 소년과 부모의 관계가 우호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부모의 감독’의 정도가 높을수록 소년과 부모의 관계가 반드시 우호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둘은 경험적으로 구분되어야 한다.

관여는 사회성원들이 교육, 직업 등 기존의 관습적인 행위에 대한 투자한 정도를 의미하는데, 청소년에게 있어서 관여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학업성취 즉 학업성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학업성적이 높은 학생들은 비행을 저지르게 된다면 지금까지 투자한 것의 많은 부분을 잃어 버릴 수 있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를 가능성은 줄어든다고 한다. 즉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기존의 관습적인 행위에 대한 투자 정도가 높고 이는 인습사회와의 유대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높은 학업성적은 그만큼 비행을 억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는 것이다.

고 하는 일차적 관계가 중요시되는 자녀와 부모의 관계와는 달리 학교에서 교육적 성취가 중요시 되는 풍토에서 교사와 학생과의 관계에서는 교육적 평가와 지도라는 측면이 중요시 된다고 볼 때 애착의 하위차원으로서의 부적절 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에서 처음부터 관여에 대한 지표로서 사용된 것은 아니었다. Hirschi[1969 : 162-186]는 인습적인 행위노선 *conventional lines of action*에 대한 수용 또는 투자라는 의미를 지니는 ‘관여’의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서 청소년의 교육적 열망과 기대라는 항목에 의존하였다. 그러나 열망과 기대를 관여의 주요 지표로 사용한 초기의 사회통제이론의 입장과 달리 최근 들어 경험적 연구를 통하여 열망과 기대가 청소년 비행에 큰 영향력을 보이지 않는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Agnew, 1985; Krohn & Massey, 1980; Massey & Krohn, 1986; Wiatrowski et al., 1981]. 대신에 관여의 지표로 학업성적을 사용했을때 비행에 대한 영향력은 훨씬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면서 ‘관여’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함께 매우 중요한 유대의 요소로 평가받게 되었다[Cernkovich & Giordano, 1992; Krohn & Massey, 1980; Krohn et al., 1983; LaGrange & White, 1985; Marcos et al., 1986; Massey & Krohn, 1986].

한편 참여는 사회통제이론가들이 관여의 지표로서 학업성적을 사용하게 되면서 관여와의 구분이 모호해지기 시작한다. 실제 여러 경험적인 연구에서는 관여와 참여를 인습적 활동의 견지에서 볼 때 같은 것으로 보고 관여라는 하나의 요소로 통합하거나 참여를 제외하고 있으며, 또한 관여와 별도로 구분하여 비행과의 관계를 살펴볼 때도 참여는 그다지 중요한 요인이 되지 못하다고 한다[Aultman, 1979; Elliott et al., 1985a; Krohn & Massey, 1980; Linden & Hackler, 1973; Poole & Regoli, 1979; Thomas & Hyman, 1978; Wiatrowski et al., 1981].

Hirschi도 참여를 그다지 중요시 하지 않았는데, 우선 “대부분의 일탈행위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으며 대다수의 청소년들은 일탈의 기회라고 할 수 있는 상황에 빈번하게 노출된다”[1969 : 88]고 했으며, 자신의 사회통제이론의 경험적 검증결과에 대한 논의[1969 : 320-321]에서도 참여라는 요소가 비행억제에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신념은 사회통제이론가들에 의해서 비교적 많이 다루어지지 않았는데, 그 이유로는 신념이 비행에 영향을 준다고 할지라도 보다 중요하고 일차적인 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애착이나 관여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부차적인 것이라는 주장[Aultman, 1979; Conger, 1976]을 들 수 있으며, 다른 한편으로는 사회통제이론가들의 관심이 개인의 내면화된 태도나 가치보다는 가정, 학교와 같은 제도적인 사회통제의 기제에 관심을 가졌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러나 무

엇보다도 도덕적 신념이라는 개념이 차별접촉이론에서 주된 요인으로 강조하는 ‘비행 또는 법률위반에 대한 태도’ 혹은 ‘비행가치’와 유사한 개념으로 보기 때문이다. 신념이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진다는 것은 사회통제이론뿐만 아니라 차별접촉이론도 검증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회통제이론가들은 먼저 발표된 차별접촉이론과의 구분을 위해서도 신념은 애착과 관여의 결과로서 나타난 부차적인 것으로 평가하면서 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사실상 제외하고 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주요 통제요인으로 상정한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의 감독, 학업성적 등의 변인을 중심으로 세가지 유형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고자 한다. 첫째,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의 감독간의 상호작용인데 이는 부모의 간접적 통제와 부모의 직접적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를 말하는 것이며, 둘째, 부모의 애착과 학업성적과의 상호작용은 부모의 간접적 통제와 관여라고 하는 자신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통제의 상호작용 효과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부모의 감독과 학업성적간의 상호작용은 부모의 직접통제와 관여 사이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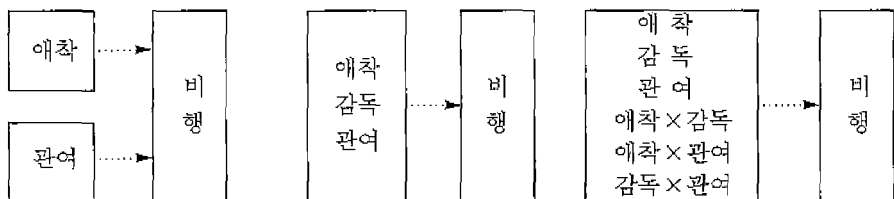
III. 연구모델의 구성

하나의 변인이 다른 관심있는 변인, 즉 비행에 대한 다른 독립변인의 효과를 조건 지을 때 주효과 *main effect*만의 검증은 매우 중요한 통찰력을 감출 수 있다. 비록 상호작용의 발견이 실질적으로 매우 흥미있는 분석의 결과를 가져 온다고 할지라도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그것의 존재를 귀찮은 것으로 취급하고 종종 단순성을 위해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은 결코 이상한 것이 아니며, 보다 정밀한 이론화와 검증을 위해서는 상호작용의 실태를 파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Poole & Regoli, 1979).

본 연구에서 기존의 Hirschi 사회통제모델을 수정 확장하여 적용하는 연구 모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상호작용 모델이 가지는 의미를 기존의 접근 방식과 비교하여 간략하게 그림으로 표현하면 그림 1과 같다. 먼저 왼쪽 그림은 허쉬의 검증방식이며, 기존의 대부분의 경험적 연구의 접근방식은 가운데 그림과 같이 ‘애착’과 ‘감독’ ‘관여’를 동시에 고려하여 세가지 요인의 부가적 모델 *additive model*을 구성하고 다른 요인의 영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각각의 요인들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다. 이는 각각의 요인들이 비

행에 미치는 순수한 효과를 파악하는 데 유용한 점이 없지 않으나 그것의 함의 반드시 사회유대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의 총량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하는 상호작용 모델은 거기서 더 나아가 두가지 요인의 결합효과를 변인으로 도입함으로써 애착, 감독, 관여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할 수 있다.

그림 1 : 연구모델의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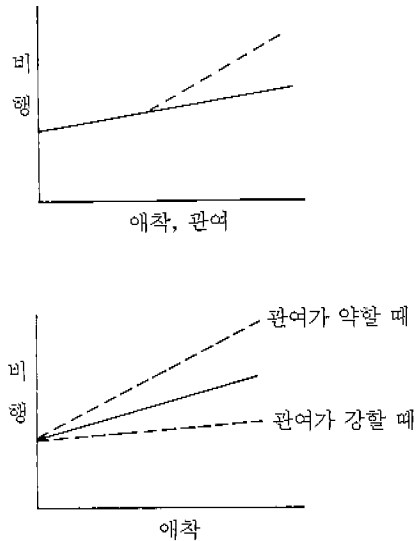
(Hirschi의 검증모델)

(기존의 부가적 모델)

(본 연구의 상호작용 모델)

상호작용 효과를 도입하게 된 이유를 보다 쉽게 예를 들어 그림으로 제시하면 그림 2와 같다. 먼저 왼쪽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실선은 부가적 모델에서 애착과 관여라는 두가지 요인의 정도와 비행과의 관계를 나타낸다면, 점선은 실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상호작용 효과를 보여주고 있다. 즉 상호작용 효과의 도입을 통하여 부가적 모델에서 예측하고 있는 이상으로 보다 많은 비행을 하거나 보다 심각한 비행을 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가능해 질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애착이 약하고 관여의 정도가 약한 소년의 경우에는 부가적 모델에서 애착이나 관여의 변인이 기대하는 양 이상의 비행이나 더 심각한 비행을 저지를 수 있고 바로 그러한 것을 상호작용 모델은 보여 줄 수 있다.

그림 2 : 상호작용 효과의 예시



두가지 변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의 도입이 의미를 가지는 또 다른 이유는 위의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부가적 모델에서는 애착과 비행과의 관계의 강도는 실선과 같이 다른 요인의 정도에 상관없이 일정하게 표현되고 있지만, 실제적으로는 관여의 정도에 따라서 그 관계의 강도는 점선과 같이 상대적으로 그 강도가 강하거나 낮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비행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고찰은 현실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따라서 본 연구모델을 통하여 검증하고자 하는 경험적 연구과제는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의 감독, 관여라는 통제요인들로 구성된 상호작용 모델이 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가, 특히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며, 또한 특정 통제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통제요인의 정도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봄으로써 각각의 통제요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이다.

IV. 연구방법

1. 분석자료

본 연구모델의 경험적 검증을 위하여 사용된 자료는 1996년 7월 10일부터 7월 30일까지 서울시내에 소재하는 인문계와 실업계 고교에 재학중인 남녀 2,151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김준호, 이동원, 1996]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에 부적합한 설문을 제외한 총 2,099부가 최종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에 사용된 주요 변인의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종속변인으로 사용될 비행은 경비행 척도, 중비행 척도, 비행심각도 척도라는 세가지 척도로 구분하고자 하였다. 그 이유는 상호작용 효과의 도입이 비행의 횟수에 있어서의 증가뿐만 아니라 비행 죄질의 심각화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킬 것으로 예상하여 보다 구체적으로 상호작용 효과가 나타나는 국면을 살피기 위함이다.

비행항목의 선정은 1995년도에 국내에서 최초로 수행된 청소년 비행척도에 관한 연구결과⁴⁾를 이용하여 본 연구 목적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12개 항목을 선정하였다. 경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항목은 “술집 등에 가서 술마시기” “비디오방 출입” “흡연” “락카페 출입” 등 4개 항목이며, 중비행을 측정하기 위해서 선정된 항목은 “자전거 훔치기” “오토바이 훔치기” “빈 집에 들어가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패싸움” “다른 사람을 위협 또는 협박하여 돈이나 물건 뺏기” “술 취한 어른에게 돈이나 지갑 뺏기”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등 8개 항목이다. 이상과 같은 항목을 조사대상자들에게 제시한 후 지난 1년간의 경험 횟수를 “전혀 없다” “1번” “2~3번” “4~5번” “6번 이상” 등의 응답범주에 표시하도록 하였다.⁵⁾

경비행과 중비행 척도는 청소년 비행의 빈도를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다. 이

4) 김준호·이동원, 「한국의 청소년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1995.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비행행위를 설문조사를 통하여 광범위하게 파악하여 비행항목 60개를 1차로 수집하였고, 60개 비행항목에 대한 청소년들의 경험실태를 조사한 후 최종적으로 20개 비행항목을 선정하고, 일반인들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죄질조사도 병행 실시하였다.

5) 흡연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하루를 기준으로 하였다.

는 청소년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통제요인이 동시에 약화되었을 때 보다 더 많은 비행을 할 것이라는 가정을 검증하는 데 있어서 적절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상호작용 효과를 살펴보는 것이 의미있는 것은 비행의 빈도 뿐만 아니라 비행의 심각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즉 어떤 소년들이 보다 심각한 비행을 하게 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하나의 해답을 제공하기 위하여 상호작용 효과를 살피게 된 것이다. 따라서 소년의 비행행위 정도를 횡수와 상관없이 심각도(죄질)를 중심으로 척도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죄질척도의 구성은 죄질점수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⁶⁾를 이용하여 11개 항목 각각의 경험여부에 따라 경험이 있는 경우에는 횡수에 상관없이 해당 항목의 죄질점수⁷⁾를 부여하고 그것을 모두 합산하여 이루어졌다.

한편 독립변인인 부모에 대한 애착의 측정에 이용된 문항은 “부모님과 나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려고 노력하는 편이다” “부모님은 나에게 늘 사랑과 애정을 보이신다” “부모님과 나는 서로를 잘 이해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무엇이든 허물없이 이야기하는 편이다” “나는 내 생각이나 느낌, 밖에서 있었던 일들을 부모님께 자주 이야기하는 편이다” “부모님과 나는 자주 이야기를 나누는 편이다” 등 6개 항목이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부모의 감독”은 청소년들의 생활에 대한 직접적 통제로서, 부모가 자녀의 생활에 대해 어느 정도 알고 있으며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사용된 문항은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누구와 함께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대부분 알고 계신다” “내가 외출했을 때 부모님은 내가 언제 돌아올지를 대부분 알고 계신다” 등 4개 문항이며, 응답범주는 “전혀 그렇지 않다”에서 “매우 그렇다” 까지 5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6) 김준호·이동원의 연구(1995)에서는 일반시민과 학생을 대상으로 하여 “음주”를 기준 항목으로 설정한 후 각각의 비행항목이 그에 비해서 몇배나 더 나쁜가를 통하여 죄질점수를 산출하였다. 그리하여 최저 1점에서 최고 231점까지의 죄질점수를 구하였다.

7) 김준호·이동원(1995)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11개 비행항목의 죄질점수는 다음과 같다. “락카페 출입” 1.48, “술집 등에 가서 술마시기” 1.75, “비디오방 출입” 5.50, “흡연” 5.72, “패싸움” 61.3, “다른 사람을 심하게 때리기” 65.4, “자전거 훔치기” 70.5, “오토바이 훔치기” 76.9, “빈집에 들어가서 돈이나 물건 훔치기” 106.2, “술 취한 어른에게 돈이나 지갑 뺏기” 107.4, “다른 사람을 위협 또는 협박하여 돈이나 물건 뺏기” 142.4 등이다.

다음으로 관여를 측정하는데 사용된 문항은 청소년의 학업성적인데, 이는 학급에서의 석차를 통하여 측정했으며, 구체적으로는 “지난해 학년말 당신의 학업성적은 반에서 몇 등이었습니까?” 라는 질문을 제시하고, “1~5등” “6~10등” “11~15등” “16~20등” “21~25등” “26~30등” “31~35등” “36~40등” “41~45등” “46~50등” “51등 이하” 의 응답범주에 표시하도록 하였다.

기타 청소년의 개인적 사회경제적 배경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성별, 학교유형(인문·실업), 부모의 직업, 부모의 수입, 부모의 학력 등의 변인을 측정하여 통제변인으로 분석에 포함하였다.

2. 분석방법

독립변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살피는 데는 우선적으로 고려할 점이 있다. 무엇보다도 여러 독립변인과 그 독립변인들을 결합하여 구성된 상호작용 변인이 같은 회귀분석 모델안에 포함될 때 다중공선성 *multicollinearity*이 존재할 가능성이 커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그러한 모델에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중공선성은 일반적으로 변수들간의 상관계수가 높을 때(예를들어, $r > 0.8$ 또는 0.9) 발견되는 경우가 많지만 상관관계가 높다고 해서 반드시 다중공선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김두섭, 1993 : 175-176]. 다중공선성을 검색하기 위하여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법은 잔여분산 *residual variance*의 정도를 파악하는 것인데, 이 방법은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하여 각 단계에서 다른 독립변수들의 영향력을 감안한 후 마지막으로 포함시킨 변수의 잔여분산⁸⁾을 계산하고 그 값이 매우 작으면⁹⁾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명하게 된다. 즉 상호작용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취급하고 상호작용 변인의 구성에 포함된 두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취급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는 것이다.

잔여분산을 통하여 새로 도입된 상호작용 변인이 기존의 독립변인들과 다중공선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명되면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통계적 검증이 가능하게 된다. 상호작용 효과의 도입이 의미있는지를 전반적으로 검증

8) 잔여분산값은 $1 - R^2_{n(n-1)}$ 를 통해서 구하는데, 여기서 $R^2_{n(n-1)}$ 은 n 번째 독립변수를 종속변수로 삼아 나머지 독립변수를 회귀시켜 얻게 되는 결정계수의 값을 말한다.

9) 대체로 잔여분산값이 0.01-0.001 정도이면 다중공선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본다.

하는 방법은 주 변인만을 포함하는 부가적 모델과 주 변인 *main variables*과 상호작용 변인을 모두 포괄하는 상호작용 모델간의 설명량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¹⁰⁾ 이는 두 모델간의 R^2 값을 비교하여 회귀식에 상호작용항을 포함시킴으로써 증가하는 R^2 값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가를 확인하는 방법이다. 물론 그러한 방법 이외에도 상호작용 변인 각각의 회귀계수값의 유의도를 살피는 방법도 있으나, 이는 상호작용 모델에 포함되는 상호작용 변인이 하나일 경우에는 별 문제가 없지만 본 연구에서와 같이 여러개의 상호작용 변인이 함께 포함될 경우에는 특정 상호작용 변인은 종속변인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다른 상호작용 변인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R^2 값의 변화에 대한 통계적 검증방법이 상호작용 효과의 도입에 대한 전반적인 검증에 더 적절하다. 그렇지만 회귀계수값의 통계적 유의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고찰을 위하여 사전에 유의미한 상호작용 변인을 선택하는 과정에서 회귀계수값의 통계적 유의도를 그 선택의 기준으로 삼았다.

두가지 변인의 상호작용 효과는 그들 변인이 복합적으로 종속변인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의 양상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여주기 위해서는 특정 변인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가 다른 어떤 변인의 조건에 따라서 유의미하게 달라지느냐를 살펴야 한다. 한 변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변인의 조건에 따라서 나타나는 형태는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어 특정 조건하에서는 유의미하고 특정 조건하에서는 유의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을 경우에는 둘간의 차이에 대한 별도의 검증이 필요하지 않지만, 만약 모든 조건하에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거나, 특정 조건하에서는 무의미하지만 일부 몇몇 조건하에서는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경우에 유의미한 정도에 차이가 있는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즉 각각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나타난 유의미한 비표준화 회귀계수값들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고 판정할 수 있는지를 검증하여야 한다. 회귀계수값의 차이를 비교하는 공식은 Pedhazur[1982]가 제시한 다음 공식¹¹⁾을 이용하였다.

10) 설명량의 차이가 유의미한지를 판정하는 F 값을 구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F_{(k1-k2, m-k1-1)} = \frac{(R^2_{y,abc} - R^2_{y,ab}) / (k1 - k2)}{(1 - R^2_{y,abc}) / (n - k1 - 1)}$$

여기서 $R^2_{y,abc}$ 는 상호작용항이 포함된 회귀식의 결정계수이고, $R^2_{y,ab}$ 는 상호작용항을 배제시킨 회귀식에서 얻은 결정계수이며, $k1$ 과 $k2$ 는 두 회귀식에 포함된 독립변수의 수이며, n 은 표본의 크기이다.

$$T = \frac{B_1 - B_2}{\sqrt{S_1^2 + S_2^2}}$$

V. 분석결과

구체적인 분석에 앞서 상호작용 변인과 그것의 구성에 포함된 독립변인간의 다중공선성의 존재여부를 파악하기 위한 검증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주 변인과 상호작용 변인간의 다중공선성 검증 결과

독립변인 (주 변인)	종속변인 (상호작용변인)		
	애착 × 감독	애착 × 성적	감독 × 성적
부모에 대한 애착	.511***	.391***	
부모의 감독	.622***		.442***
학업성적		.814***	.777***
R ²	.964***	.948***	.930***
잔여분산	.036	.052	.070

주: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세 개의 상호작용 변인을 종속변인으로 놓고 그것의 구성에 포함된 세개의 주 변인을 독립변인으로 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잔여분산 값이 최소한 .036 이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3개의 모든 상호작용 변인이 회귀분석 모델 안에 포함될 수 있는 전제조건인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제 비행 통제요인인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의 감독 및 학업성적이 비행에 미치는 주효과 *main effects*와 상호작용 효과 *interaction effects*에 대한 검증결과를 살펴보면 표 2와 같다.

- 11) 이 공식은 두 집단간의 평균차를 검증하는 아래의 공식을 응용한 것으로, 아래의 공식에 $\sigma_1 = \sqrt{n_1} \times S_1$, $\sigma_2 = \sqrt{n_2} \times S_2$ 를 적용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T = \frac{M_1 - M_2}{\sqrt{\frac{\sigma_1^2}{n_1} + \frac{\sigma_2^2}{n_2}}}$$

먼저 경비행에 대한 통제요인들의 주효과 step1를 살펴보면, 세가지 통제요인 모두가 경비행의 정도에 대하여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세가지 통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 변인을 도입하여 분석을 실시한 결과 step2를 살펴보면, 세가지 통제요인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 변인 중 어느 것도 경비행과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고 있다. 그리고 두가지 모델간의 설명량의 차이는 .200에서 .204로서 설명량의 증가가 유의미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표 2 : 통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 검증¹²⁾

독립변인	종속변인					
	경비행		중비행		비행심각도	
	step 1 ^a	step 2 ^a	step 1	step 2	step 1	step 2
성	-.117***	-.122***	-.188***	-.200***	-.210***	-.219***
학교유형	.188***	.190***	.119***	.122***	.142***	.143***
부모 직업	-.001	-.001	.023	.024	.038	.039
부모 학력	.075**	.075**	.018	.015	.009	.007
부모 수입	.137***	.136***	.031	.029	.036	.035
부모에 대한 애착 ^b	.077***	.029	.086***	.037	.090***	.149*
부모의 감독 ^b	.208***	.109	.045	.008	.048***	.064
학업성적 ^b	.211***	.006	.133***	.088*	.160***	.130
애착 × 감독		.087		.286*		.186
성적 × 애착		.156		.348**		.367***
감독 × 성적		.098		.047		.010
R ²	.200***	.204***	.090***	.104***	.117***	.126***
R ² 증가량 (F값)	2.461		10.781***		7.105***	

주 :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a. step 1은 상호작용 변인을 배제한 상태의 주 변인만의 회귀분석,

step 2는 상호작용 변인을 포함한 회귀분석.

b. 그 값이 높을수록 애착, 감독의 정도가 약하고 성적이 불량하다는 것을 나타냄.

12) 독립변인에 포함된 성, 학교유형, 부모 직업, 부모 학력, 부모 수입 등의 변인은 개인의 가정적 사회적 배경의 영향을 통제하기 위하여 도입된 변인이므로 그에 대한 별도의 해석을 하지 않기로 한다.

이상과 같은 경비행에 대한 통제요인들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검증결과를 보면, 통제요인들로 구성된 상호작용 변인이 경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증가시켜 주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중비행에 대한 세가지 주 변인과 상호작용 변인의 효과를 보면, 먼저 주효과에 대한 검증 결과,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업성적은 중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부모의 감독은 중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상호작용 모델에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의 감독으로 구성된 상호작용 변인과 학업성적과 부모에 대한 애착으로 구성된 상호작용 변인이 중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두가지 모델의 중비행에 대한 설명량은 .090에서 .104로 유의미한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상호작용 효과의 도입이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유의미하게 향상시키는 것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비행심각도에 대한 상호작용의 효과를 보면 학업성적과 애착으로 구성된 상호작용 변인이 비행심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두가지 모델간의 설명량의 증가도 .117에서 .126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상호작용 효과의 도입은 비행심각도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종합해 볼 때 부모에 대한 애착, 부모의 감독 그리고 학업성적 등이 낮을수록 대체로 경비행이든 중비행이든 비행을 할 가능성이 커지며, 비행의 심각도도 높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경비행에 있어서는 두가지 통제요인의 수준이 동시에 낮아졌다고 해서 각각의 변인이 예측하는 양 이상의 경비행으로 발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반면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낮으면서 학업성적이 낮거나 또는 부모의 감독이 소홀한 청소년에게 있어서 더욱더 심각한 비행을 보다 더 많이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학업성적과 부모에 대한 애착의 상호작용 변인이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의 감독으로 구성된 상호작용 변인에 비해서 중비행과 비행심각도에 상대적으로 강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전자의 경우는 애착과 관여라는 두가지 유대요소가 모두 약화된 상태이고 후자는 넓은 의미의 애착의 약화만을 의미하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로 풀이된다. 애착과 감독은 부모의 직·간접적 통제라는 의미를 강하게 띠고 있고, 학업성적은 본인 스스로 합리적 판단을 통한 비행의 통제라는 측면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업성적이라는 상호작용 변인이 중비행

과 비행심각도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부모로부터의 정서적 통제와 본인 스스로의 합리적 판단에 의한 통제가 모두 무너질 경우에 비행에 대한 억제력이 급격히 약화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앞서 상호작용 모델의 검증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유의미한 상호작용 변인으로 판명된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업성적”의 상호작용 변인 및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의 감독”의 상호작용 변인을 중심으로 각각의 변인들이 다른 변인들의 수준에 따라서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먼저 부모에 대한 애착과 학업성적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으로서 학업성적의 수준¹³⁾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비행과 비행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중비행에 대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학업성적이 상위에 속하는 소년들의 경우에는 애착과 중비행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학업성적이 중간이거나 하위에 속하는 소년들의 경우에는 애착과 중비행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업성적이 하위에 속하는 소년들에게 있어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비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비표준화 회귀계수값은 .124로 중간집단 소년들의 .046보다 크게 나타났으며, 두 회귀계수값의 차이에 대한 통계적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비행심각도에 대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분석결과도 중비행과 마찬가지로 학업성적이 상위에 속하는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비행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찾아 볼 수 없고, 중간집단과 하위집단에서는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고 있으며, 중간집단보다는 하위집단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비행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은 더욱더 크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중비행과 비행심각도에 대한 분석에서 공히 학업성적이 나쁠수록 부모에 대한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강하게 나타났다.

결국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비행이나 비행심각도에 미치는 효과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소년들에게서는 상대적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으며, 반면에 학업

13) 소년의 학업성적의 정도는 학급석차를 중심으로 1~10등에 해당되는 소년은 ‘상’ 집단으로, 11~40등은 ‘중’ 집단으로, 41등 이하에 해당되는 소년은 ‘하’ 집단으로 구분하였다.

성적이 우수한 집단의 소년에게 있어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같은 결과가 의미하는 것은 두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로 학업성적이 나쁜 소년들에게 있어서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가 더욱더 크다는 것은 이미 관여를 통한 비행억제력이 상실된 상태에서 또다른 통제요소라고 할 수 있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화되었을 때 중비행을 더 많이 하거나 저지르는 비행의 죄질이 더욱더 무거워질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로 학업성적이 우수한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우수한 학업성적 그 자체가 관여를 통한 비행통제의 역할을 강력하게 발휘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통제요소인 부모에 대한 애착이 약화되더라도 중비행을 더 많이 하거나 더욱더 죄질이 무거운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표 3 : 부모에 대한 애착과 비행의 회귀분석 - 학업성적 정도별 비교

종속 변인	독립변인	성적 정도						회귀계수 차이검증 T값
		상 N=540		중 N=1138		하 N=404		
		B	Beta	B	Beta	B	Beta	
중 비 행	성	-.493	-.171***	-.802	-.186***	-1.782	-.261***	중 : 하 2.199* 중/하
	학교유형	.578	.191***	.676	.150***	.489	.071	
	부모 직업	.049	.057	.017	.012	.037	.018	
	부모 수입	.075	.101*	.026	.022	.034	.020	
	부모 학력	.023	.016	.096	.047	-.053	-.017	
	부모에 대한 애착	.027	.078	.046	.104***	.124	.175***	
	R ²	.073***		.065***		.103***		
비 행 심 각 도	성	-21.38	-.173***	-33.77	-.202***	-74.59	-.314***	중 : 하 1.890
	학교유형	28.72	.222***	26.28	.151***	27.03	.112*	
	부모 직업	2.676	.073	1.149	.021	2.692	.037	
	부모 수입	3.339	.104*	1.630	.035	.703	.011	
	부모 학력	-.137	-.002	2.685	.034	-2.382	-.022	
	부모에 대한 애착	.932	.070	2.280	.132***	4.174	.169***	
	R ²	.080***		.079***		.137***		

주 :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반대로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¹⁴⁾에 따라서 소년의 학업성적이 중비행과 비행심각도에 미치는 영향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살펴보면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먼저 중비행에 대하여 소년의 학업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애착수준에 상관없이 학업성적은 중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업성적의 회귀계수값을 통하여 애착의 수준에 따라서 학업성적이 중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결과, 애착정도가 강한 집단(.083)과 중간 정도인 집단(.084)간에는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고 있지만 애착정도가 약한 집단(.202)에서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비행과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표 4 : 학업성적과 비행의 회귀분석 -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별 비교

종속 변인	독립변인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						회귀계수 차이검증 T값
		강함 N=657		중간 N=795		약함 N=633		
		B	Beta	B	Beta	B	Beta	
중 비 행	성	-.595	-.222***	-1.001	-.246***	-1.237	-.188***	강 : 중 .031 중 : 약 2.351* 강 : 약 2.484*
	학교유형	.284	.099*	.754	.182***	.711	.106**	
	부모 직업	-.028	.034	.101	.080*	-.036	-.018	
	부모 수입	.077	.113**	.077	.070	-.047	-.027	
	부모 학력	.009	.007	.018	.009	.071	.024	
	성 적	.083	.163***	.084	.112**	.202	.176***	
	R ²	.096***		.095***		.073***		강,중/약
비 행 심 각 도	성	-26.44	-.243***	-42.43	-.259***	-49.32	-.210***	강 : 중 .410 중 : 약 2.424* 강 : 약 2.893*
	학교유형	11.50	.098*	29.37	.176***	37.23	.156***	
	부모 직업	-1.555	-.045	4.712	.093*	.057	.001	
	부모 수입	4.436	.159***	3.250	.073*	-2.691	-.043	
	부모 학력	-1.396	-.027	-1.951	-.025	5.026	.047	
	성 적	3.598	.174***	4.117	.138***	8.603	.210***	
	R ²	.123***		.109***		.106***		강,중/약

주 :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14)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는 6개 측정문항의 합산점수가 6~14점이면 “강함”집단으로 분류하였고, 15~19점이면 “중간”집단으로, 20~30점이면 “약함”집단으로 구분하였다.

한편 비행심각도에 대하여 소년의 학업성적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대체로 중비행과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부모의 애착정도에 상관없이 소년의 학업성적은 소년의 비행심각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애착의 정도에 따라서 미치는 영향을 비교해 볼 때, 애착이 강한 집단(3.598)과 중간 집단(4.117)은 비슷한 정도를 보이고 있지만 애착의 정도가 약한 집단(8.603)에서는 다른 두 집단에 비해서 비행과의 관계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부모애착이 약할수록 학업성적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소년의 학업성적은 부모의 애착수준에 상관없이 일관되게 비행에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특히 부모의 애착의 정도가 약했을 경우에는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더욱더 커진다고 할 수 있다.

부모의 애착과 학업성적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분석결과를 통해서 발견된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 청소년 비행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으로 취급되어온 부모에 대한 애착의 변인이 학업성적이 우수한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비행에 대하여 유의미한 영향력을 가지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점이다. 이는 역으로 비행의 통제와 관련하여 볼때 학업성적이 우수한 집단의 경우에는 부모의 애착이라는 것이 비행을 통제하는 데 별 다른 효과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며, 소년들에게 있어서 학업성적이 우수하다는 것은 관여의 정도가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본다면 부모와의 관계에 다소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인 스스로 지금까지 투자한 것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비행을 저지르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청소년들의 비행을 설명하는데 있어서 학업성적이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학업성적의 수준에 따른 애착의 효과든 애착의 수준에 따른 학업성적의 효과든 특정 통제요인의 수준에 비례해서 애착의 효과나 학업성적의 효과가 증가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즉 다른 통제요인의 정도가 낮은 집단에서 특정 통제요인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나고, 반면에 중간 집단과 강한 집단간에는 비슷하게 나타났다는 것은 역으로 애착과 관여라는 유대의 정도는 그렇게 나쁘지 않은 정도(중간이상)라면 비행에 관해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 다른 유의미한 상호작용 변인은 부모에 대한 애착과 부모의 감독으로

구성된 상호작용 변인이다. 먼저 부모의 감독의 수준¹⁵⁾에 따라서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비행¹⁶⁾에 미치는 영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에 대한 분석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 부모에 대한 애착과 비행의 회귀분석 - 부모 감독 정도별 비교

종속 변인	독립변인	부모의 감독 정도						회귀계수 차이검증 T값
		강함 N=626		중간 N=830		약함 N=628		
		B	Beta	B	Beta	B	Beta	
중 비 행	성	-.661	-.254***	-.756	-.174***	-1.348	-.208***	중 : 약 1.617
	학교유형	.304	.108**	.819	.183***	.616	.096*	
	부모 직업	-.006	-.008	.060	.045	.029	.015	
	부모 수입	.016	.024	.049	.041	.090	.055	
	부모 학력	-.010	-.008	-.052	-.024	.094	.033	
	부모에 대한 애착	.017	.060	.054	.105**	.107	.149***	
	R ²	.081***		.073***		.061***		

주 :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중비행의 정도에 대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면, 부모의 감독이 강한 집단에 속하는 소년들의 경우에는 애착과 중비행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부모의 감독이 중간이거나 약한 소년들의 경우에는 애착과 중비행간에는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부모의 감독정도가 약한 소년집단에서 부모에 대한 애착의 회귀계수값은 .107로서 중간집단의 소년들의 회귀계수값 .054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통계적 검증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부모의 감독정도가 약한 집단과 중간 집단간에는 애착의 효과가 사실상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부모의 감독정도가 강한 집단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과 중비행간에는 유의미한 관계가 없는 점에 미루어 볼 때, 부모에 대한 애착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감독이 약할수록 강하다고 볼 수 있다.

15) 부모의 감독정도는 4개 측정문항의 합산점수가 4~9점이면 “강함”집단으로 분류하였고, 10~14점이면 “중간”집단으로, 15~20점이면 “약함”집단으로 구분하였다.

16) 비행심각도에 대한 상호작용변인의 영향은 앞서 <표 2>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으므로 제외한다.

앞서 부모의 애착이 미치는 효과가 학업성적의 수준에 따라서 달라지는 양상과는 달리 감독의 정도가 중간이거나 약한 집단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 한편 부모의 감독정도가 강한 집단에서는 부모에 대한 애착의 정도가 중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감독의 정도가 매우 강하면 애착의 정도에 상관없이 비행을 적게 한다는 의미로서 이들 집단의 소년들이 다른 집단의 소년들보다 중비행의 정도¹⁷⁾가 가장 낮기 때문에 일견 부모 감독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고, 현실적으로 부모의 감독이 아주 강력하다면 비행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으리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부모 감독의 중요성은 부모에 대한 애착수준에 따라서 부모의 감독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보다 정확하게 알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부모의 애착의 수준에 따라서 부모의 감독이 비행에 미치는 효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표 6>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표 6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부모의 애착정도가 중간이거나 약한 소년들에게서는 부모의 감독이 중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감독이 중비행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서, 다른 통제요인이 약해진 상태에서 다른 통제의 약화가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더 강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부모의 감독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애착이 약할수록 강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부모의 감독이 중비행에 미치는 영향은 부모의 애착수준을 고려할 때 상당히 제한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앞서 표 5의 결과만을 놓고 볼때는 부모의 감독을 강하게 받는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애착이 약화되더라도 중비행이 늘어날 가능성이 없다는 경험적 결과를 보여줬기 때문에 강력한 부모의 감독이 소년으로 하여금 중비행을 억제하지 않는가라는 해석을 할 수 있지만, <표 6>을 통하여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소년들에게 있어서는 부모의 감독의 약화가 비행으로 발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역으로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한 소년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감독이 강력할 때 비행

17) 감독의 정도에 따라 집단별로 중비행의 정도를 평균값을 통해서 살펴보면, 강한 집단에서는 .277, 중간 집단에서는 .679, 약한 집단에서는 1.081로서 부모의 감독정도가 강한 집단에 속한 소년의 중비행 정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부모의 감독이 비행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것은 “부모에 대한 애착이 강할 경우” 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표 6 : 부모의 감독과 비행의 회귀분석 - 부모에 대한 애착정도별 비교

종속 변인	독립변인	부모에 대한 애착 정도						회귀계수 차이검증 T값
		강함 N=657		중간 N=795		약함 N=633		
		B	Beta	B	Beta	B	Beta	
중 비 행	성	-.564	-.211***	-.957	-.235***	-1.121	-.170***	
	학교유형	.272	.094*	.730	.176***	.713	.106	
	부모 직업	-.032	-.038	.095	.075	-.091	-.009	
	부모 수입	.078	.113**	.080	.073*	-.047	-.027	
	부모 학력	.005	.004	.010	.005	.048	.019	
	부모의 감독	.037	.102**	.035	.063	.057	.067	
	R ²	.080***		.086***		.047***		

주: * P < .05, ** P < .01, *** P < .001 수준에서 유의미

사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감독은 애착과는 달리 직접적 통제를 의미하기 때문에 자칫 청소년들로 하여금 간섭과 구속으로 여겨질 가능성이 크고, 따라서 부모와의 정서적 친밀도나 의사소통의 정도를 나타내는 애착과는 달리 오히려 비행의 억제에 긍정적인 영향보다는 부정적인 영향을 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러므로 부모와 자녀 사이에 애착이 동반되지 않는 상황에서의 자녀에 대한 부모의 감독 강화는 비행억제에 아무런 효과가 없으며, 만약 애착이 동반된 상태에서 부모의 감독이 강화된다면 비행억제에 매우 효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가 의미하는 바는 단순히 청소년에 대한 감독의 강화로는 비행을 예방하는 데 효과가 없고 소위 “사랑의 때”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확대해석해 볼 수 있다. 이는 아동기에는 체벌을 통해서도 행위를 통제하는데 효과를 거둘 수 있지만, 청소년에게 있어서 그러한 훈육방식은 전혀 효과를 거둘 수 없고 오히려 반발심을 불러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VI. 결 론

본 연구는 청소년 비행에 설명하는 데 있어서 Hirschi의 사회통제이론이 가지는 가장 큰 약점으로 지적되어온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키는 데 있어서 통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를 도입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고 또한 사회통제이론이 가지고 있는 함의에 비추어 볼 때도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경험적 검증을 실시하였다. 경험적 검증을 통하여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부모에 대한 애착 및 감독 그리고 관여라고 하는 주요 통제요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의 도입으로 인하여 중비행 뿐만 아니라 비행심각도에 대한 설명력도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물론 경비행에 대한 사회통제이론의 설명력에 비해서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것은 여전히 본 연구결과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변인의 추가 도입없이 사회통제이론의 변인을 중심으로 중비행에 대한 설명력을 향상시켰다는 점은 본 연구가 가진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아울러 본 연구결과에서 발견된 의미있는 사실을 지적하면, 우선 지금까지 부모에 대한 애착이 비행과 매우 강한 관계가 있다는 주장은 적어도 학업성적이 우수한 집단의 소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이는 부모에 대한 애착이 중비행이나 비행심각도에 미치는 효과는 학업성적이 불량한 소년들에게는 매우 크게 나타났지만 학업성적이 우수한 집단에서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분석결과를 통하여 알 수 있었다. 반면에 부모의 감독은 애착이 강한 집단에서만 비행을 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의 발견도 매우 중요하다. 한편 학업성적은 부모의 애착수준에 상관없이 비행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애착의 정도가 약할수록 비행과의 관계는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하여 알 수 있듯이 변인들간의 상호작용 효과에 대한 검토는 특정 변인이 비행에 미치는 영향을 다른 변인과의 관계속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이는 특정 변인이 비행과 유의미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다른 변인과 연계하여 비행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상호작용 효과의 분석과 해석에 있어서 통계적인 문제와 해석상의 어려움 때문에 두 변인간의 결합효과에만 국한하여, 세요인간의 결합효과 등에 대해서는 분석하지 못한

점이 여전히 아쉬운 점으로 남는다.

참 고 문 헌

- 김두섭(1993), 「사회과학을 위한 회귀분석」, 법문사.
- 김준호, 이동원(1995), 「한국의 청소년 비행척도 개발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1996), 「청소년의 긴장과 비행」, 한국형사정책연구원.
- 이성식(1995), “청소년 비행론에 있어서 허위의 사회통제이론에 대한 수정된 논의,” 「형사정책연구」, 제24호.
- Agnew, R.(1985), “A revised strain theory of delinquency,” *Social Forces* 64 : 151-167.
- (1991), “The interactive effects of peer variables on delinquency,” *Criminology* 29 : 47-72.
- (1993), “Why do they do it? An examination of the intervening mechanisms between ‘Social Control’ variables and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30 : 245-266.
- Aultman, Madeline G.(1979), “Delinquency causation : A typological comparison of path models,”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70 : 152-163.
- Burkett, S. R. and M. White(1974), “Hell-fire and delinquency : Another look,” *Journal of the Scientific Study of Religion*, 13 : 455-462.
- Burkett, S. R. and B. O. Warren (1987), “Religiosity, peer influence, and adolescent marijuana use : A panel study of underlying causal structures,” *Criminology*, 25 : 109-131.
- Canter, R. J.(1982), “Family correlates of male and female delinquency,” *Criminology*, 20 : 149-167.
- Caulfield, S. L.(1988), *An extension and refinement of Hirschi's social control theory : Analyzing interactions among the elements of the social bond*, State University of New York at Albany,
- Cernkovich, S. A. and P. C. Giordano (1987) “Family relationship and delinquency,” *Criminology*, 25 : 295-321
- (1992) “School bonding, race, and delinquency,” *Criminology*, 30 : 261-291.

- Conger, Rand.(1976), "Social control and social learning models of delinquency : A synthesis," *Criminology*, 14 : 17-40.
- Elliott, D., D. Huizinga, and S. Ageton(1985a), *Explaining delinquency and drug use*, Beverly Hills, CA : Sage.
- Gardner, L. and D. J. Shoemaker(1989), "Social bonding and delinquency : A comparative analysis," *Sociological Quarterly*, 30 : 481-500.
- Giordano, P. C., S. A. Cernkovich, and M. D. Pugh(1986), "Friendship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91 : 1170-1202.
- Hansell, S., and M. D. Wiatrowski(1981), "Competing conceptions of delinquent peer relations," In *Sociology of Delinquency : Current Issues*, edited by G. F. Jensen, Berverly Hills, CA : Sage.
- Hepburn, J. R.(1976), "Testing alternative models of delinquency causation,"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67 : 450-460.
- Hindelang, M. J.(1973), "Cause of delinquency : A partial replication and extension," *Social Problems*, 20 : 471-487.
- Hirschi, T.(1969), *Causes of delinquency*, Berkeley :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 (1986), "On the compatibility of rational choice and social control theories of crime", In *The reasoning criminal : Rational choice perspectives on offending*, edited by D. B. Cornish and R. V. Clarke, pp. 105-118, New York : Springer-Verlag.
- Hirschi, Travis, and Michael Gottfredson(1986), "The Distinction Between Crime and Criminality," In *Critique and Explanation : Essays in Honor Bwynne Nettler*, edited by Timothy Hartnagel and Robert Silverman (pp.55-69). Transaction Books.
- Jensen, Gary F.(1972), "Parents, peer, and delinquent action : A test of the differential association perspective,"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78 : 562-575.
- Jensen, G. F. and Raymond Eve(1976), "Sex differences in delinquency : An examination of popular sociological explanations," *Criminology*, 13 : 427-448.
- Johnson, K. A.(1984), "The applicability of social bond theory in understanding adolescent alcohol use," *Sociological Spectrum*, 4 : 275-294.
- Johnson, Richard E.(1979), *Juvenile delinquency and its Origins : An integrat-*

- ed theoretical approach*,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 Kelly, D. and W. T. Pink(1973), "School commitment, youth rebellion, and delinquency," *Criminology*, 10 : 473-485.
- Krohn, M. D.(1974), "An investigation of the effect of parental and peer associations on marijuana Use : An empirical test of differential association," In *Crime and delinquency : Dimensions of deviance* edited by M. Riedal and T. P. Thornberry, New York : Praeger.
- Krohn, M. D., and J. L. Massey(1980), "Social control and delinquent behavior : An examination of the elements of the social bond," *Sociological Quarterly*, 21 : 529-543.
- Krohn, M D., J. L., Massey, W. F. Skinner, and R. M. Lauer(1983), "Social bonding theory and adolescent cigarette smoking : A longitudinal analysis,"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24 : 337-349.
- LaGrange, R. L. and H. R. White(1985), "Age differences in delinquency : A test of theory," *Criminology*, 18 : 303-318.
- Linden, E. and J. C. Hackler(1973), "Affective ties and delinquency," *Pacific Sociological Review*, 16 : 27-46.
- Liska, A. E., and M. D. Reed(1985), "Ties to conventional institution and delinquency : Estimating reciprocal effect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50 : 547-560.
- Marcos, Anastasios C., Stephen J. Bahr, and Richard E. Johnson(1986), "Test of bonding/association theory of adolescent drug use," *Social Forces*, 65 : 135-161.
- Matsueda, R. L.(1989), "The dynamic of moral beliefs and minor deviance", *Social Forces*, 68 : 428 : 457.
- Massey, J. L. and M. D. Krohn (1986), "A longitudinal examination of an integrated social process model of deviant behavior," *Social Forces*, 65 : 106-134.
- Minor, W. W.(1977), "A deterrence-control theory of crime," In *Theory in criminology : Contemporary views*, edited by R. E. Meier , pp. 117-137, Beverly Hills : Sage.
- Pedhazur, E. J.(1982), *Multiple regression in behavioral research*, N.Y. : CBS Cllege Publishing.
- Poole, E. D. and R. M. Regoli(1979), "Parental support, delinquent friends, and

- delinquency : A test of interaction effects," *The Journal of Criminal Law & Criminology*, 70 : 188-193.
- Rankin, J. H.(1977), "Investigating the interrelations among social control variables and conformity," *Journal of Criminal Law and Criminology*, 67 : 470-480.
- (1980) "School factors and delinquency : Interaction by age and sex," *Sociology and Social Research*, 64 : 420-434.
- Rankin, J. H., and L. E. Well(1990), "The effect of parental attachments and direct controls on delinquency," *Journal of Research in Crime and Delinquency*, 20 : 140-165.
- Reckless, W. C.(1961), *The crime problem*, New York : Appleton-Century-Crofts.
- Reiss, A. J.(1951), "Delinquency as the failure of personal and social controls,"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16 : 196-207.
- Rosenbaum, J. L.(1987), "Social control, gender and delinquency," *Justice Quarterly*, 4 : 117-132.
- Thomas, C. W. and J. M. Hyman(1978), "Compliance theory, control theory, and juvenile delinquency," In *Crime, law, and sanction : Theoretical perspectives*, edited by M. D. Krohn and R. L. Akers, pp.73-90, Berverly Hills, CA : Sage.
- Wiatrowski, M. D., D. Griswold, and M. Roberts(1981), "Social control tsheory and f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46 : 525-541.